

Complete Guide to

IFRS 18

2027년 의무 적용

영업이익의 개념이
완전히 재정의됩니다.

PUBLISHED BY

선영회계법인

STARTUP & SME SPECIALIST

contact@0to1tax.com

070-8065-3619

TABLE OF CONTENTS

IFRS 18 완전 가이드: 주요 내용 요약

KEY TAKEAWAYS

- ✓ 2027년 의무 도입되는 IFRS 18의 핵심 변경 사항과 영업이익 재정의 완벽 이해
- ✓ 실제 사례(제조/IT/쿠팡)를 통한 손익계산서 구조 변화 시뮬레이션 및 해석
- ✓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3단계 실무 로드맵과 구체적인 실행 체크리스트 제공

■ PART 1. OVERVIEW & CONCEPT

IFRS 18의 도입 배경과 개념적 변화를 이해하고, 기존 회계 기준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파악합니다.

01 개요와 적용 시기

IFRS 18 도입 배경, 목적 및 2027년 의무 적용 일정과 비교재무제표 작성 필수 요건 체크

02 기준 vs IFRS 18 영업이익

잔여 개념으로 재정의되는 영업이익과 기준 방식의 차이점, 투자자 관점의 해석 변화 분석

03 손익계산서 3범주 구조

영업·투자·재무 3단계 범주별 분류 기준과 새로운 손익 계산 공식 및 중간합계 표시 방법

■ PART 2. CASES & APPLICATION

실제 기업 사례를 통해 변화를 시뮬레이션하고, MPM 등 새로운 공시 제도의 활용법을 익힙니다.

04 사례: 제조업/IT기업 비교

업종별 실제 데이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산 처분, 손상차손 등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 분석

05 K-IFRS 1118 수정도입

한국 채택 기준의 특징인 '영업이익 이원화(본문/주석)' 표기 방식 및 조정표 작성 실무

06 MPM이란 무엇인가

경영성과지표(MPM)의 정의, 필요성, IFRS 18 내 공시 위치 및 감사인 검토 요구사항

07 쿠팡 사례: Adjusted EBITDA

쿠팡의 실제 공시 자료를 통해 분석하는 MPM 조정 항목의 논리와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전략

■ PART 3. PRACTICAL GUIDE

실무에서 가장 헛갈리는 투자활동, 금융손익, 자산 처분 등의 구체적인 분류 기준을 정리합니다.

08 투자활동 분류 기준

영업 vs 투자 판단의 핵심 프레임워크와 금융업/임대업 등 특수 사업모델의 예외 사항 정리

09 이자·배당·외환손익 가이드

발생 원천(영업/투자/재무)에 따른 금융손익의 범주별 분류 기준 및 실무 판단 사례

10 파생상품 손익 분류

위험의 출처(영업/재무)에 따른 파생상품 손익의 범주 판단법과 헤지회계와의 관계

11 자산 처분손익 분류

자산의 보유 목적과 역할(영업용/투자용)에 따른 처분손익 및 손상차손 분류 체크리스트

■ PART 4. ACTION PLAN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실행 과제와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12 실무 준비 3단계 로드맵

CoA 재정비부터 시스템 구현까지, 2027년 도입을 위한 시기별, 단계별 구체적 실행 전략

13 연락처 및 서비스

IFRS 18 도입 지원 서비스 및 초기 진단 컨설팅 문의 안내

IFRS 18 개요 및 적용 시기

EXECUTIVE SUMMARY

IFRS 18은 손익계산서 표시 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영업·투자·재무 범주로 구분하고 경영성과지표(MPM) 공시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회계 기준입니다. 이는 지난 20여 년간의 회계 기준 변경 중 가장 큰 규모의 재무제표 표시 변화입니다.

01. 의무 적용 시기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됩니다(조기 적용 가능). 2026년은 비교 표시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사실상 2026년부터 시스템 병행 운영이 필요하며, 2025년 말 데이터부터 IFRS 18 기준 집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02. 적용 대상

모든 상장사 및 금융기관 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전체 기업이 대상입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원칙이며, 지배기업 및 각 종속기업의 주된 사업 활동 성격에 따라 범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어 연결 실체 관점의 개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03. 도입 배경

기존 기준(IAS 1)은 손익계산서 표시 방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부족하여, 기업 간 영업이익 산출 방식이 상이하고 비교 가능성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항목 나열식 구조에서 벗어나, 손익을 '발생 원천'별 3범주(영업·투자·재무)로 명확히 구분하는 구조적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04. 도입 목적

모든 기업이 통일된 구조로 손익을 보고하게 하여, 투자자가 기업 간 재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환경(Comparability)을 마련합니다. 또한 자의적인 영업이익 산출을 방지하고, 경영진이 사용하는 성과지표(MPM)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유도하여 정보비대칭을 해소합니다.

05. 비교정보 재작성 (필수)

2027년 사업보고서 작성 시, 전기(2026년)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전전기(2025년) 재무제표도 IFRS 18 기준으로 소급하여 재작성**하고 비교 표시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는 3개년(2025, 2026, 2027) 비교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2025년 데이터 확보가 중요합니다.

06. 당기순이익 영향

IFRS 18은 손익의 '분류와 표시'에 관한 기준이므로, **최종 당기순이익(Net Income) 금액 자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익이 도출되는 과정과 중간합계(영업이익 등)의 구조만 변경되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영업이익 변화: 기존 vs IFRS 18

익숙했던 영업이익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변화합니다. 투자·재무 활동을 제외한 '잔여 손익'으로 재정의되며, 핵심적인 7가지 측면에서 구조적 변화가 발생합니다.

구분	기준 K-IFRS (AS-IS)	IFRS 18 (TO-BE)
01. 정의 방식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 기업의 주업종과 관련된 수익/비용만 포함하는 한정적 개념	투자·재무 범주를 제외한 잔여 손익 Residual Concept: 별도로 정의되지 않은 모든 손익은 영업으로 귀속
02. 산출 구조	매출 - 매출원가 - 판관비 비용의 기능별 분류가 일반적이며 단순한 차감 구조	전체 손익 - 투자손익 - 재무손익 범주별 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영업 범주의 범위가 대폭 확대됨
03. 비경상 손익	원칙적으로 영업이익에서 제외 구조조정비용, 기부금, 재해손실 등은 영업외비용 처리	다수 항목 포함 가능 비경상적이라도 투자/재무 활동이 아니면 영업손익에 포함됨
04. 자산 처분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영업외 유형자산, 무형자산 처분손익은 영업 활동과 무관하다고 판단	대부분 영업손익 포함 영업에 사용된 자산(공장, 설비 등)의 처분손익은 영업으로 분류
05. 손상차손	대부분 영업외비용 처리 영업권 손상, 유무형자산 손상 등은 비경상적 비용으로 인식	영업비용으로 분류 영업 자산의 가치 하락은 영업 성과의 일부로 판단하여 반영
06. 변동성	상대적으로 낮음 (안정적) 일회성 요인이 배제되어 경상적 이익 추세 파악에 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짐 (변동성 확대) 일회성 거액 손익이 포함되어 기간별 이익 변동폭이 커질 수 있음
07. 투자자 해석	직관적 해석 가능 영업이익 ≈ 지속가능이익으로 해석하는 관행 존재	추가 설명 없으면 해석 난해 영업이익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MPM/주석 필수

KEY IMPLICATIONS

- 01 **변동성 관리의 중요성 증대:** 일회성 손익의 영업이익 포함으로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설명 논리와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강화가 필요합니다.
- 02 **MPM 설계의 전략적 가치:** 회사의 실질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영업이익의 한계를 보완할 '지속 가능한 이익' 중심의 MPM(경영성과지표)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 03 **계정과목 재분류 작업 필수:** 2026년 결산 전까지 기존 영업외손익 항목들을 전수 조사하여 IFRS 18 기준(영업/투자/재무)에 맞춰 재분류하는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손익계산서 구조: 영업·투자·재무 3범주 상세

IFRS 18은 손익계산서를 영업, 투자, 재무의 3개 범주로 재편합니다. 기존 '영업외손익' 개념은 사라지며, 각 항목은 그 성격과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히 재분류됩니다.

① 영업 (OPERATING)

RESIDUAL (잔여)

투자 및 재무 범주로 정의되지 않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포함하는 '잔여 범주'입니다. 주된 영업활동 결과뿐만 아니라, 비경상적인 항목들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 매출액 및 매출원가
- 유·무형자산 처분손익 (공장, 기계 등)
- 재고자산 폐기/평가손실
- 기부금 (일반적 기업의 경우)
- 영업활동 관련 외환차손익
-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 임차료 등)
- 유·무형자산 손상차손
- 구조조정 관련 비용 (퇴직위로금 등)
- 영업권 손상차손
- 소송 관련 충당부채 전입액/환입액

② 투자 (INVESTING)

ASSET RETURN

주된 영업목적과 독립적으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자, 배당, 임대수익) 및 자산 가치 변동을 포함합니다.

-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처분손익
- 종속기업/관계기업 주식 처분손익
- 현금성자산 이자수익
- 배당금 수익
- 투자자산 손상차손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지분법손익
- 금융자산(주식·채권) 평가손익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손익
- 대여금 관련 손익 (대손 등)
- 투자활동 관련 외환차손익

③ 재무 (FINANCING)

CAPITAL COST

기업의 자금조달 활동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현금흐름표의 재무활동과 연계되나, 예금 이자수익은 '투자'로 분류됨에 주의해야 합니다.

- 차입금/사채 이자비용
- 리스부채 이자비용
- 신종자본증권 배당금 (부채 분류 시)
- 차입금 관련 파생상품 평가/거래손익
- 사채 상환손익 (조기상환 포함)
- 복구충당부채 등의 기간경과에 따른 이자비용
- 차입금 관련 외환차손익
- 전환사채(CB) 파생상품평가손익

실무 판단 Check Point

외환손익/파생: 기계적으로 재무/투자로 분류하지 않고, **기초가 되는 항목의 분류**를 따릅니다. (예: 매출채권 외환손익 → 영업)

현금성자산 이자: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투자 범주**로 분류됩니다.

퇴직급여 이자원가: 확정급여채무의 순이자원가는 **영업 또는 재무**로 정책적 선택이 가능합니다. (일관성 필수)

주된 사업 판단: 부동산 임대가 주업인 기업의 임대수익은 투자가 아닌 **영업 범주**로 분류됩니다.

사례 비교: 제조업 A사 · IT기업 B사

IFRS 18 도입으로 인한 손익계산서 구조 변화를 제조업과 IT기업의 실제 사례를 통해 심층 분석합니다. 특히 자산 처분, 손상차손 등 비경상적 항목이 영업손익에 포함됨에 따라 영업이익 수치와 변동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하고, 이에 따른 투자의 해석 프레임워크 변화를 제시합니다.

CASE 1. 제조업 A사 (대규모 유형자산 보유)

(단위: 억 원)

▶ A사의 손익 상황 (Scenario)

제조업 A사는 경영 효율화를 위해 노후화된 제2공장 부지를 매각하여 **처분이익 50억 원**을 실현했습니다. 동시에 과거 인수한 자회사의 실적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영업권 손상차손 20억 원**을 당기 비용으로 인식했습니다.

구분	K-IFRS	IFRS 18	변동 원인 및 분석
매출액	1,000	1,000	변동 없음
매출원가/판관비	(900)	(900)	변동 없음
기타수익/비용	-	+30	공장매각(+50) - 손상(-20)
영업이익	100	130	+30억 (30%↑) 영업외항목의 영업손익화
영업외손익	+15	(15)	이자비용 등 재무/투자손익만 잔존
당기순이익	92	92	최종 손익 불변

▶ 조정 내역 상세 (Reconciliation Detail)

기존 영업이익 100억 원에 공장 매각이익(+50억)과 영업권 손상차손(-20억)이 모두 영업손익으로 분류되어, 최종 영업이익은 130억 원으로 30% 증가했습니다. 이는 본업의 성장이 아닌 일회성 자산 처분 효과가 큽니다.

CASE 2. IT기업 B사 (부동산 보유 및 무형자산 중심)

(단위: 억 원)

▶ B사의 손익 상황 (Scenario)

IT기업 B사는 신규 사업 자금 확보를 위해 보유 중인 강남 사옥을 매각하여 **처분이익 80억 원**을 거뒀습니다. 한편, 일부 개발 프로젝트의 중단으로 인해 관련 **무형자산 손상차손 15억 원**을 인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분	K-IFRS	IFRS 18	변동 원인 및 분석
매출액	500	500	변동 없음
영업비용	(400)	(400)	인건비, 지급수수료 등
기타수익/비용	-	+65	사옥매각(+80) - 손상(-15)
영업이익	100	165	+65억 (65%↑) 대규모 처분이익 반영
영업외손익	+55	(10)	금융손익 등만 잔존
당기순이익	124	124	최종 손익 불변

▶ 조정 내역 상세 (Reconciliation Detail)

사옥 매각차익 80억 원이 영업수익으로 잡히면서 영업이익률이 20%에서 33%로 급등했습니다. 무형자산 손상차손 15억 원도 영업비용으로 처리되어, 기술 기업의 실적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KEY IMPLICATIONS & STRATEGY

- 영업이익 변동성 확대:** 자산 처분이나 손상 등 비반복적 항목이 영업손익에 포함됨에 따라 연도별 영업이익의 변동 폭(Volatility)이 기존 보다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 착시 효과 주의:** IT기업 B사 사례처럼 본업의 성장 없이 자산 매각만으로도 '영업이익 서프라이즈'가 가능해지므로, 숫자의 질(Quality of Earnings)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INVESTOR GUIDE: 투자 해석 가이드

2027년부터는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 숫자만 보고 기업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주석 공시의 '영업손익 조정표'를 확인하여 일회성 항목이 얼마나 포함되었는지 밸라내야 하며, 기업이 제시하는 MPM(경영성과지표)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경상 이익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K-IFRS 1118호 수정도입: 조정 영업이익 상세 가이드

본문(IFRS 18)과 주석(K-IFRS Adjusted) 간 차이 내역(Reconciliation) 작성 실무

PAGE 07

본문 표시 (IFRS 18 기준)

영업손익 (Operating Profit)

*잔여 개념: 투자/재무 외 모든 손익 포함

주석 공시 (K-IFRS 1118 기준)

조정 영업손익 (Adjusted OP)

*성과 개념: 과거 영업이익(매출-원가-판관비) 유지

■ 영업이익 조정표 작성 예시 (RECONCILIATION)

구분	조정 사유	금액 (억원)
I. IFRS 18 영업손익 (본문) 국제기준에 따른 포괄적 영업이익	-	2,500
(-) 유형자산 처분이익 (공장 매각)	비경상적 자산 처분	(350)
(-) 투자부동산 평가이익	평가 손익 (비현금)	(120)
(+) 영업권 손상차손	비경상적 손상	80
(+) 구조조정 비용 (명예퇴직급여)	비반복적 비용	150
(+) 기부금	영업활동 무관	30
(-) 외환차익 (영업관련 제외분)	재무/투자 성격	(40)
(+) 소송 충당부채 전입액	비경상적 사건	50
II. 조정 영업손익 (주석) 과거 K-IFRS 기준 (매출-원가-판관비)	K-IFRS 1118	2,300

☰ 주요 조정 항목 판단 기준

▣ 자산 처분 및 손상 (Disposal & Impairment)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손상차손은 IFRS 18에서 '영업'으로 분류되나, K-IFRS 조정 영업이익에서는 제외(기타손익 처리)될 가능성이 높음.

₩ 기부금 및 기타 영업외비용 (Donations & Others)

기존에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되던 기부금, 잡손실 등이 IFRS 18 '영업비용'에 포함되므로, 조정표에서 (+) 조정 필요.

₩ 외환손익의 배분 (FX Allocation)

IFRS 18은 외환손익을 발생 원천(영업/투자/재무)에 따라 조개야 함. 조정 영업이익 산출 시 '영업 관련 외환손익'만 남기고 나머지는 조정.

💡 Insight: 정보 유용성

투자자들은 두 가지 영업이익을 모두 활용할 것입니다. IFRS 18 영업이익은 기업의 '전체적인 사업 성과'를 보여주고, 조정 영업이익은 '핵심 사업의 지속 가능한 수익성'을 보여줍니다. 두 지표의 차이가 클수록(변동성이 클수록) IR 차원의 상세한 설명(MPM 등)이 중요해집니다.

정의 (Definition)

IFRS에서 규정하지 않으나, 경영진이 기업의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정의하여 공시하는 성과지표. IFRS 18에서는 이를 주석에 포함하여 공식화합니다.

도입 배경 (Background)

IFRS 18 영업손익에 일회성 항목이 포함되어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핵심 이익창출력'을 별도로 소통하려는 시장의 니즈를 반영했습니다.

공시 의무 (Requirement)

단순 기재를 넘어, ①산출 근거 ②IFRS 손익과의 차이 내역(Reconciliation) ③왜 이 지표가 유용한지에 대한 설명을 주석에 포함하고 감사 를 받아야 합니다.

대표 예시 (Examples)

· Adjusted Operating Profit / · Adjusted EBITDA / · Core Earnings

MPM 설계의 3대 원칙 (PRINCIPLES)



일관성 (Consistency)

매 기간 동일한 기준 적용.
실적 유불리에 따른 변경 금지.



중립성 (Neutrality)

긍정적 조정만 하지 않고,
부정적 항목도 동일하게 반영.



투명성 (Transparency)

조정 항목의 성격을 명확히 공시.
누구나 검증 가능해야 함.

실무 적용 예시 (PRACTICAL CASES)

1. Adjusted EBITDA

- 가장 보편적인 현금창출 지표
- (+) 감가상각비 (D&A)
- (+) 주식보상비용 (비현금)
- (+) 비경상적 구조조정 비용
- (-) 일회성 자산처분이익

2. Core Operating Income

- 순수 영업력 측정 지표
- (-) 영업권 손상차손
- (-) 무형자산 손상차손
- (-) 소송 관련 충당부채
- (-) 화재/재해 손실

3. Normalized Net Income

- 주주귀속 이익 정상화 지표
- (+/-) 파생상품 평가손익
- (+/-) 외환환산손익 (비실현)
- (+/-) 전환사채 평가손익
- 세무효과(Tax Effect) 고려

MPM 설계 시 흔한 실수 (Check Points)

- | | |
|--|--|
| <p>✗ Cherry-picking: 이익일 땐 포함, 손실일 땐 제외하는 행위 금지.</p> <p>✗ IFRS보다 강조: MPM을 IFRS 지표보다 더 눈에 띄게 표시 금지.</p> | <p>✗ 일반 비용 제외: 마케팅, R&D 등 경상 비용을 임의로 제외 금지.</p> <p>✗ 불분명한 라벨링: '순이익' 등 혼동 유발 용어 사용 금지.</p> |
|--|--|

최종 도입 체크리스트

- | | |
|--|-----------------------------------|
| <p>✓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표와 일치하는가?</p> <p>✓ 감사인과 조정 항목 적정성 협의를 완료했는가?</p> | <p>✓ ERP 데이터로 산출 내역 검증이 가능한가?</p> |
|--|-----------------------------------|

쿠팡 Adjusted EBITDA 조정 구조 상세 분석

쿠팡은 영업손익의 변동성을 줄이고 본질적인 현금창출력을 설명하기 위해 MPM을 제시합니다. 각 조정 항목의 논리와 실무적 함의를 상세 분석합니다.

IFRS NET INCOME

\$371 M

당기순이익

OPERATING PROFIT

\$1,143 M

영업이익

ADJUSTED EBITDA

\$1,644 M

핵심 관리 지표

조정 내역 상세 (RECONCILIATION BREAKDOWN)

단위: 백만 달러 (2025.09 TTM 기준)

조정 항목 및 실무적 의미 (Rationale)	금액 (\$)
Net Income (당기순이익) 출발점: 모든 수익/비용이 반영된 최종 손익	371
1. 감가상각비 (D&A) 비현금 물류센터 등 대규모 CAPEX 투자의 기간 배분 비용을 제거하여 현금 흐름 중심 성과 측정	+ 501
2. 이자비용 & 이자수익 재무 자본 구조(부채비율 등)에 따른 비용을 제거하여 순수 영업 성과만 분리	- 95
3. 법인세비용 세무 국가별 세율 차이나 세무 전략에 따른 영향을 배제	+ 483
4. 주식보상비용 (Stock-based Comp) 비현금 현금 유출이 없는 인건비로서, 주가 변동성에 따른 손익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	+ 474
5. 화재 보험금 수익 (Insurance Recovery) 일회성 덕평 물류센터 화재 관련 보험금 수령액은 영업 본질과 무관한 일시적 이익이므로 차감	- 175
6. 구조조정 및 M&A 관련 비용 일회성 Farfetch 인수 관련 자문료 및 통합 비용 등 비반복적 성격의 지출 가산	+ 67
7. 기타 영업외손익 (Other Inc/Exp) 외환차손익, 유형자산 처분손익 등 잡다한 비영업 항목 제거	+ 18
Adjusted EBITDA (조정 후 이익)	1,644
*Margin: 4.9% (vs Net Income Margin 1.1%)	

조정 항목별 실무 가이드 (PRACTICAL GUIDE)

주식보상비용 (SBC)

Tech 기업의 가장 큰 조정 항목. 현금 유출은 없지만 주주 가치 희석 효과가 있으므로, 투자자는 조정 전/후를 모두 비교해야 함.

일회성 손익 (One-offs)

'일회성'의 정의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 매년 발생하는 구조조정 비용이나 소송 비용은 경상 비용으로 간주될 위험 있음.

비현금 항목 (Non-cash)

감가상각비, 손상차손 등 회계적 추정에 의한 비용을 제거하여 '현금 창출 능력(Cash Flow Proxy)'을 강조하는 데 유효함.

재무/세무 항목

국가 간 세율 차이나 자본 조달 방식의 차이를 제거하여, 글로벌 Peer 그룹과의 순수 영업 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임.

유사 기업 조정 항목 비교

항목	Coupang	Naver	Kakao
주식보상비용	O	O	O
M&A/구조조정	O	X	O
기부금	X	O	X
무형자산손상	X	X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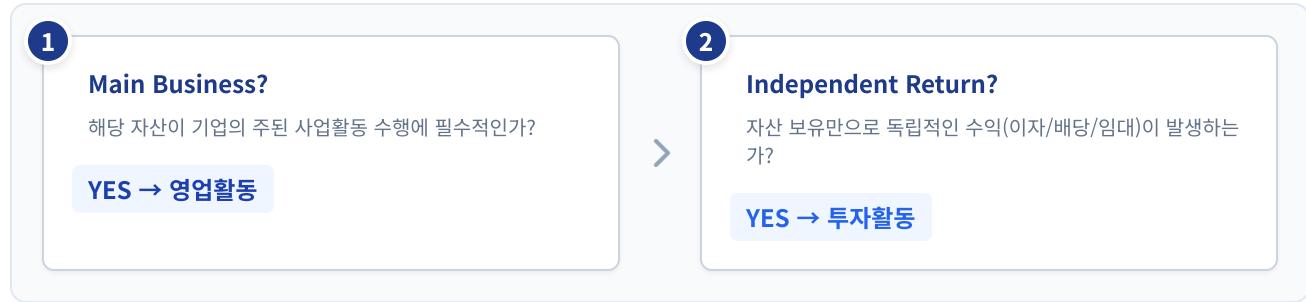
MPM 설계 시사점 (Key Takeaways)

- 일관성의 원칙:** 화재 보험금 수익과 같은 '이익' 항목도 과감히 차감 조정하여(Negative Adjustment) 지표의 신뢰도를 확보함.
- 상세 내역 공시:** 단순히 총액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위 표와 같이 각 항목별 금액과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IFRS 18 주석 요구사항을 충족함.
- 투자자 설득 논리:** 왜 이 비용을 제외하는 것이 회사의 실질 가치를 보는 데 도움이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함 (예: SBC 제외 논리).

투자활동 분류 기준 완전 정복

투자활동은 주된 사업활동(영업)과 독립적으로, 자산 보유 자체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기업의 핵심 성과(영업이익)와 투자 성과를 분리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판단 프레임워크 (DECISION LOGIC)



대표적인 투자활동 분류 항목

투자부동산 임대수익, 처분손익, 평가이익	지분상품 (주식) 배당금수익, 처분손익, 평가손익
장기금융자산 이자수익, 상각후원가 측정 손익	관계/공동기업 투자 지분법 손익, 처분손익
현금성자산 (잉여)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익	기타 금융자산 FVPL, FVOCI 금융자산 평가손익
비영업 대여금 임직원 대여금 등 이자수익	투자관련 외환손익 투자자산 관련 환율변동효과

실무 판단 사례 (PRACTICAL CASES)

CASE 1. 제조업체 A사의 유휴 공장 임대

투자활동

상황: 생산 중단된 공장을 타사에 임대하여 임대수익 발생.

판단: 주된 사업(제조)과 무관하며, 자산 자체에서 독립적 수익을 창출하므로 투자활동 분류.

CASE 2. IT기업 B사의 단기 자금 운용

투자활동

상황: 유상증자로 확보한 현금을 만기 3개월 정기예금에 예치.

판단: 사업 목적이 아닌 여유 자금의 단순 운용 수익이므로 투자활동 분류.

CASE 3. 자주회사 C사의 배당금 수익

영업활동 (예외)

상황: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판단: 일반 기업은 '투자'이나, 자주회사는 자회사 관리가 '주된 사업활동'이므로 영업활동 분류 가능 (정책 선택).

① 주요 오류

- 금융업의 이자수익:** 은행, 캐피탈 등은 이자 수취가 본업이므로 100% 영업활동.
- 영업 관련 파생상품:** 원자재 가격 햇지 목적의 파생상품 손익은 영업활동.
- 매출채권 처분손익:** 팩토링 등으로 인한 처분손실은 영업활동(자금조달 성격 아님).

✓ 분류 체크리스트

- 자산의 보유 목적이 '사업 운영'인가 '수익 창출'인가?
- 발생한 손익이 본업의 영업이익 마진율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는 성격인가?
- 현금흐름표의 투자활동 현금흐름과 매칭되는가?
-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성과 보고서에서 별도로 관리되는가?

이자·배당·외환손익 분류 상세

IFRS 18에서는 이자, 배당, 외환손익을 단일 범주로 묶지 않고, 발생 원천이 되는 자산·부채의 성격에 따라 3가지 범주로 엄격히 구분합니다.

범주별 상세 분류 항목 (CLASSIFICATION DETAILS)

▣ 영업 (Operating)

- 매출채권 이자: 외상매출, 할부판매 등 영업거래 유래
- 영업 외환손익: 매출/매입 채무 결제 및 평가 환율효과
- 운전자본 파생손익: 원자재 헛지 등 영업목적 파생상품
- 유의적 금융요소: 장기선수금/장기미수금의 금융효과
- 임차보증금 이자: 영업용 자산 임차 관련 현재가치 할인차금
- 정부보조금: 영업비용 보전 목적의 보조금 수익

주된 사업활동 연관

▣ 투자 (Investing)

- 현금성자산 이자: 예금, 적금 등 여유자금 운용 수익
- 지분투자 배당금: 단순투자주식, 관계기업투자 배당수익
- 투자 외환손익: 외화예금, 해외채권 등 투자자산 환산손익
- 대여금 이자: 관계사 대여금, 비영업 대여금 이자수익
- 투자부동산 임대: 시세차익/임대 목적 부동산 수익
- 금융상품 처분: 채권, 펀드 등 투자자산 처분 이익/손실

독립적 수익 창출

▣ 재무 (Financing)

- 차입금 이자비용: 은행차입, 사채 등 자금조달 비용
- 사채 상각비: 사채발행차금 상각액 등 이자성 비용
- 조기상환 손익: 부채의 조기 상환 및 변경 관련 손익
- 리스부채 이자: 사용권자산 관련 리스부채의 이자비용
- 재무 외환손익: 외화차입금, 외화사채의 평가/상환 환차손익

자금 조달 활동

실무 판단 사례 (PRACTICAL CASES)

CASE 1. 제조업체 A사의 수출대금 환차익

영업활동

상황: 제품 수출 후 3개월 뒤 달러로 대금을 회수하며 환율 상승으로 이익 발생.

판단: 매출채권은 주된 영업활동의 결과물이므로, 관련 외환손익도 영업으로 분류.

CASE 2. IT기업 B사의 유휴자금 정기예금 이자

투자활동

상황: 투자 유치 자금 중 당장 쓰지 않는 50억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자 수취.

판단: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원칙적으로 투자활동으로 분류 (금융업 제외).

CASE 3. 사모펀드(PEF) C사의 배당수익

영업활동 (예외)

상황: 투자한 포트폴리오 기업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및 지분 처분이익.

판단: 투자가 주된 사업활동(Main Business)인 경우 투자자산 수익을 영업손익으로 분류 가능.

❶ 주요 오류

- **종속기업 배당:** 일반 기업은 '투자'이나, 지주사 등은 정책에 따라 '영업' 지정 가능.
- **리스부채 이자:** 영업자산(공장/사무실) 사용 대가이나, 회계상 '부채' 이자이므로 '재무' 분류 원칙.
- **외화 현금 환산:** 단순 보유 외화현금의 환산손익은 '투자'(또는 재무)이나, 영업 결제용임이 명확하면 '영업' 허용 여지 검토 필요.

❷ 분류 체크리스트

- 손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부채가 BS상 어디에 속하는가?
- 이자 비용은 자금조달(부채)과 관련되었는가? (Yes → 재무)
- 외환차이는 영업주기(채권/채무) 내 발생했는가? (Yes → 영업)
- 주된 사업활동(금융업/투자업 등) 특수성을 고려했는가?
- 현금흐름표(Cash Flow)의 분류와 정합성이 맞는가?

파생상품 손익은 해지회계(IFRS 9)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하는 위험의 원천'에 따라 분류됩니다.

분류 핵심 원칙 (CORE PRINCIPLE)

Risk Source Driven (위험 원천 중심)



"이 파생상품이 어떤 위험을 헛지(Hedge)하기 위한 것인가?"
영업 관련 위험 → 영업 | 자금조달 위험 → 재무 | 기타/투자 → 투자

Check Point

해지회계 미지정도
실질에 따름

범주별 상세 분류 기준 및 예시

1. 영업활동 (Operating)

Main Business Risk

주된 사업활동(매출/매입/생산)에서 발생하는 가격, 환율 변동 위험 관리

- 수입 원자재 매입 관련 선물환(환율)
- 원자재(구리, 유가 등) 가격변동 선물
- 임직원 주식보상권(SARs) 평가손익
- 수출 매출채권 회수 관련 통화선도
- 확정계약(Firm Commitment) 관련 파생상품
- 재고자산 공정가치 위험회피 파생상품

2. 재무활동 (Financing)

Funding Risk

자금 조달 및 상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율, 환율 변동 위험 관리

- 변동금리 차입금 관련 이자율스왑(IRS)
- 전환사채(CB)의 파생상품 부채 평가손익
- 상환전환우선주(RCPs) 파생요소 손익
- 외화차입금 환위험 헛지 통화스왑(CRS)
- 신주인수권부사채(BW) 워런트 평가손익
- 차입금 상환용 외화 선물환 평가손익

3. 투자활동 (Investing)

Investment / Trading

특정 위험 관리 목적이 없거나, 투자자산의 가치 변동 관리 목적

- 단기 시세차익 목적의 트레이딩(Trading)
- 여유자금 운용 목적의 ELS/DLS 파생손익
- 투기적 포지션(Speculative)의 선물옵션
- 투자주식(FVPL) 가격변동 헛지 파생상품
- 암호화폐 관련 파생상품 평가/처분 손익
- 비영업 대여금 관련 통화선도

실무 판단 사례 (PRACTICAL CASES)

CASE 1. 제조업체 A사의 원자재 헛지

영업활동

상황: 구리 가격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구리 선물 계약 체결 (해지회계 미적용).

판단: 제조원가(영업비용)의 변동성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해지회계 여부와 무관하게 영업손익.

CASE 2. 수출기업 B사의 선물환 계약

영업활동

상황: 미래에 들어올 달러 매출대금의 환율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선물환 매도.

판단: 주된 영업활동(매출)에서 발생하는 환위험 관리이므로 영업손익으로 분류.

CASE 3. 금융지주 C사의 트레이딩 파생

투자활동

상황: 별도 목적 없이 시장 금리 차익을 얻기 위해 국채 선물을 매수/매도함.

판단: 위험 회피 목적이 아닌 적극적인 수익 창출(투자) 목적으로 투자활동 분류.

① 주요 오류

- 해지회계 미지정: IFRS 9상 요건 불충족으로 미지정하더라도, 실질 목적이 영업이면 영업손익.
- 복합 파생상품: 하나의 상품이 영업/재무 성격을 모두 갖는 경우, 주된 위험에 따라 분류.
- 비효과적 부분: 해지회계상 비효과적 부분으로 인식된 손익도 원천에 따라 동일하게 분류.
- 롤오버(Rollover): 만기 연장 시 발생하는 손익도 기존 계약의 성격을 승계하여 분류.

② 분류 체크리스트

- 해당 파생상품이 관리하려는 '기초자산'이나 '부채'가 무엇인지 식별하였는가?
- 해당 위험이 주된 영업활동(매출/매입/인건비 등)과 직접 관련이 있나?
- 자금조달(차입금 등)과 관련된 이자율/환율 변동 위험인가?
- 단순 시세차익 목적이나 여유자금 운용 성격인가?
- 분류 근거를 문서화하고 경영진에게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는가?

자산 처분손익 분류 기준

자산의 처분손익은 단순한 일회성 수익이 아닙니다. IFRS 18에서는 해당 자산이 기업의 주된 사업활동에서 어떤 '역할(Role)'을 수행했는지에 따라 분류를 결정합니다.

범주별 상세 분류 기준 및 대상 자산

범주	대상 자산 유형 (Examples)	핵심 판단 기준 (Criteria)
영업 Opera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형자산: 공장, 기계설비, 차량운반구 무형자산: 특허권, 상표권, 소프트웨어 영업권: 관련된 현금창출단위(CGU) 처분 시 	"주된 사업활동 수행 목적" 생산, 판매, 관리 등 영업활동에 직접 사용된 자산의 처분은 영업손익으로 분류합니다. (비경상적이라도 영업임)
투자 Inves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부동산: 임대수익 목적 건물, 토지 금융자산: 장기보유 주식, 채권, 펀드 비사업용 자산: 명확히 투기/시세차익 목적 	"독립적 수익 창출 목적" 자산 보유 자체에서 수익(임대료, 배당, 이자)이나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경우 투자활동입니다.
재무 Financ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채 상환: 차입금/사채 조기상환 손익 자본 거래: 자기주식 처분손익(자본조정) 파생상품: 자금조달 관련 파생 평가/처분 	"자금조달 활동 관련" 자본구조 변경이나 금융부채 상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입니다. (순수 자산 처분보다는 부채 제거 성격이 강함)
특수 Held for Sa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각예정비유동자산: IFRS 5 적용 자산 처분자산집단: 사업부 단위 매각 등 	"분류 전의 범주 유지"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기 직전의 자산 성격을 따릅니다. 공장이 있다면 영업, 투자부동산이었다면 투자로 분류합니다.

실무 판단 사례 (PRACTICAL CASES)

CASE 1. 제조업체 A사의 노후 공장 매각

영업활동 (Operating)

상황: 신공장 이전으로 기존 생산 공장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여 50억 원 처분이익 발생.

판단: 해당 공장은 과거 제품 생산(주된 사업)에 사용된 자산이므로, 처분이익은 일회성이라도 **영업이익**에 포함됩니다.

CASE 2. 리테일 B사의 유휴 점포 처분

투자활동 (Investing)

상황: 폐점 후 3년간 임대(투자부동산 분류)하다가 부동산 가격 상승 시점에 매각.

판단: 매각 시점의 주된 보유 목적이 '임대 및 시세차익'이었으므로 **투자활동** 손익으로 분류합니다. (단, 단순 폐점 후 즉시 매각은 영업일 수 있음)

CASE 3. 지주회사 C사의 자회사 지분 매각

영업활동 (Policy Choice)

상황: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위해 자회사 D사 지분을 매각하고 처분손실 인식.

판단: 지주회사의 경우 종속기업 투자가 주된 사업활동이므로, 정책적으로 **영업손익**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일반기업은 투자활동)

① 주요 오류

- 사업부 일괄 양도: 중단영업(Discontinued Ops)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 양수도는 일반적으로 **영업손익**입니다.
- 손상차손 후 처분: 손상차손이 영업비용이었다면, 이후 처분 손익도 **영업손익**으로 일관되게 분류해야 합니다.
- 리스자산 반환: 리스 종료로 인한 사용권자산 제거 손익은 리스료(영업비용)의 정산 성격이므로 **영업손익**입니다.
- 취득 직후 매각: 사용할 의도 없이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투자활동**으로 봅니다.

② 분류 체크리스트 (5 Points)

- 최초 취득 vs 현재 목적:** 자산의 분류는 취득 시점이 아니라 처분 시점의 '실질적 역할'을 기준으로 판단했는가?
- 연결 관점 검토:** 개별 재무제표가 아닌 연결 실체 전체 관점에서 주된 사업활동인지 확인했는가?
- 현금흐름표 일치:** 손익계산서 분류와 현금흐름표(영업/투자 CF) 분류가 논리적으로 일관되는가?
- 매각예정 분류 전 역할:** IFRS 5 적용 시, 매각예정으로 대체 되기 직전의 자산 성격을 따랐는가?
- 비경상성 배제:** 단지 금액이 크거나 드물게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손익에서 제외하지 않았는가?

2027년 의무 적용을 위해 회계팀 주도의 수기 조정 검증과 IT 시스템의 고도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2025~2026년 비교 공시 정보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1 CoA 재정비 (계정과목 재설계)

- 기준 계정과목의 IFRS 18 범주(영업/투자/재무) 라벨링 작업
- 모호한 항목(이자·배당·외환·파생)의 분류 정책 확정 및 문서화
- 연결 실제 관점의 '주된 사업활동' 정의 및 재분류 로직 설계
- 비경상적(일회성) 항목 식별을 위한 보조 코드 또는 태그 신설
- 영업비용의 성격별 분류 공시를 위한 상세 계정 세분화

⚠️ CoA 재정비 시 주의사항

ERP 시스템 수정 없이 계정 매핑만으로 해결하려 하면, 향후 데이터 정합성 문제 발생 위험이 큼. 반드시 IT팀과 협업하여 코드 레벨 검토 필요.

2 비교정보 재작성 & 조정표 검증

2026.07 ~ 12

- 2025~2026년 손익계산서를 IFRS 18 기준으로 수기 재작성 (Simulation)
- 기준 영업이익 vs IFRS 18 영업손익 차이 분석 (Gap Analysis)
- 주석 공시용 Reconciliation(조정표) 템플릿 설계 및 데이터 검증
- 외환차손익 및 파생상품 평가손익의 범주별 배분 로직 테스트
- 경영진 보고용 월간 관리회계(Monthly Report) 양식 변경안 보고

💡 비교정보 작성 팁

과거 3개년치 데이터에서 '영업권 손상', '구조조정 비용' 등 영업이익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를 미리 식별하여 IR 대응 논리를 개발해야 함.

3 MPM 설계 &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2026.10 ~ Ongoing

- 회사의 실질 성과를 대변할 MPM(Adjusted EBITDA 등) 정의 확정
- 조정 항목(Adjustments)의 논리적 근거 마련 및 감사인 사전 협의
- MPM 산출 내역 및 조정표 주석 공시 문구 패키지 작성
- 투자자/애널리스트 대상 IR 설명 자료(Q&A) 및 스크립트 준비
- 공시 시스템(DART/KIND) 입력 서식 매핑 점검 및 담당자 교육

⚠️ MPM 공시 주의

MPM은 IFRS 손익보다 눈에 띄지 않게(Less Prominent) 표시해야 하며, 매 기간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함을 명심할 것.

ERP 시스템 구현 로드맵 (4단계)

Roadmap

2025년 (분석)

- Gap 분석
- 요건 정의
- 예산 확보

2026년 (개발)

- CoA 변경
- 로직 개발
- 수기 병행

2027년 (적용)

- 자동 산출
- 주석 연동
- 시스템 오픈

2028년 (안정화)

- 고도화
- 자동 검증
- BI 연동

⌚ 프로젝트 성공 요인 (Key Success Factors)

CFT 구성

회계+IT+IR팀의 유기적 협업 체계 구축 필수

데이터 정합성

수기 조정과 시스템 산출 값의 오차 '0' 검증

일관된 메시지

영업이익 변동에 대한 시장 충격 최소화 전략

IFRS 18 전환은 단순한 회계 기준 변경이 아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재설계**입니다. Oto1tax 선영회계법인은 스타트업 및 성장 기업에 최적화된 실무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01. SERVICE PORTFOLIO

IFRS 18 영향 분석

현행 계정과목 체계(CoA)를 분석하여 IFRS 18 기준(영업/투자/재무) 분류 시나리오 및 재무제표 변동 영향 산출

MPM 설계 및 공시 전략

기업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는 핵심성과지표(MPM)를 정의하고, 투자자 설득을 위한 논리 개발 및 공시 문안 작성

K-IFRS 1118 조정표 작성

한국 채택 시 요구되는 '조정 영업이익' 산출 로직 수립 및 주석 공시를 위한 상세 Reconciliation 테이블 작성 지원

실무 가이드 & 매뉴얼

회계팀이 즉시 활용 가능한 계정 분류 매뉴얼, 결산 체크리스트, 내부 보고 양식 등 실무 툴킷(Toolkit) 제공

IR 자료 리뉴얼

변경된 손익 구조와 새로운 MPM을 반영하여 투자자 설명회(IR) 자료를 재구성하고 Equity Story를 강화

ERP 연계 및 고도화

새로운 분류 기준을 ERP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설계 요건 정의 및 IT 개발팀과의 커뮤니케이션 지원

02. PROJECT PROCESS

Step 1

초기 진단

현행 결산 데이터 분석
주요 이슈 식별

Step 2

상세 설계

분류 기준 확정
MPM 정의 및 시뮬레이션

Step 3

구현 및 적용

재무제표 재작성
조정표 산출

Step 4

사후 관리

감사 대응 지원
시스템 안정화

03. FAQ

① 컨설팅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진단부터 시뮬레이션까지 통상 4~8주가 소요됩니다. ERP 연계 포함 시 추가 기간이 필요합니다.

② 아직 매출이 적은 스타트업도 필요한가요?

네, 초기부터 IFRS 18 기준으로 관리하면 추후 IPO 시 과거 재무제표를 다시 뜯어고치는 비용과 혼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③ 비용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프로젝트 범위(법인 분류 vs MPM 포함 vs 시스템 연계)에 따라 맞춤형 견적을 제공하며, 스타트업이 필요한 모든 업무를 제공합니다.

Contact Us

✉ lg@syacc.co.kr

📞 [010-4395-1996](tel:010-4395-1996)

🌐 www.Oto1tax.com

Office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0길 12 H타워 6층

🕒 Mon-Fri 09:30 - 18:30

무료 초기 진단 미팅 예약하기 →